

①

ケイちゃんの 消えない雲



原作者：吉村大作

作画：ユリヤ・ボンダレンコ

Every morning, she would see her father
off to work with a smile.



①

매일 아침 그녀는 웃는 얼굴로 아
버지를 직장으로 배웅했습니다.

②



One summer morning on August 6, a small, black, round object fell on Kei's hometown of Hiroshima.

“What could that be?” said those who looked up at the sky.



②

8월 6일 어느 여름 아침, 작고 검고 둥근 물체가 Kei의 고향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지?" 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③



“KABOOM!!”

In no time at all, there was an explosion with a loud that echoed across all of the world, and a massive mushroom cloud suddenly appeared, covering the entire city.



③

“BOOM!!”

곧이어 엄청난 폭발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거대한 버섯구름이 갑자기 나타나 도시 전체를 덮었습니다.

④



In a flash, the entire city vanished.
Houses, schools, and hospitals all
disappeared without a trace.

It was a terrifying bomb, a nuclear
weapon, that had been dropped.



4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
다.

집, 학교, 병원 모두 흔적도 없이 사
라졌습니다.

무서운 폭탄, 핵무기가 투하된 것입
니다.

⑤



Miraculously, Kei was unharmed, but she saw people with burned skin floating in the river while others with burnt skin came to Kei saying. "Water... Give me water..."

Those people could not be saved.

And Kei never saw her family again.



5

기적적으로 Kei는 무사했지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에 떠다
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은 Kei에게 다가와 말
했습니다.

"물... 물 좀 주세요..."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Kei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⑥



A single nuclear weapon took the lives of more than 100,000 people.

What's more, the black rain that fell after the explosion from the nuclear weapon led to many serious illnesses for many more people.



⑥

단 하나의 핵무기가 10만명이 넘는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게다가 핵무기 폭발 후 내린 검은
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
병을 초래했습니다.



Eventually the war ended, and Kei became an old woman.

The city of Hiroshima has recovered to be just as beautiful as it ever was.

It makes it hard to believe that a nuclear weapon was dropped on this city.



⑦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Kei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는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도시에 핵무기가 투하되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⑧



And yet, even on sunny days, Kei's mind is overshadowed by lingering mushroom clouds.

The grief of those who perished and those who survived has remained throughout the passing decades.



⑧

그런데도, 화창한 날에도 Kei의 마음은 버섯구름에 가려져 있다. 사라진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Today, Kei shares her experience with the horror of nuclear weapons to people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use of such weapons could lead to many more people losing their lives.



⑨

현재, Kei는 핵무기의 공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ei has but one wish:
That nuclear weapons never be used
ever again.



10

Kei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핵무기는 향후 한번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安らかに眠って下さい
過ちは
繰返はせぬから

May all the people of the world finally
know peace and happiness.

The end.



11

Kei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
화와 행복이 찾아오길 바란다.

끝.



“The Cloud That Won't Disappear by Kei”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a girl named Kei.

She was only 8 years old and lived in Japan during a time of war.



12

“Kei의 사라지지 않는 구름”

오늘은 Kei라는 이름의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겨우 여덟 살이었고, 전쟁 중 일본에서 살았습니다.